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8호 [루게 제24406호] 주체102(2013)년 12월 24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뜻깊은 12월 24일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최룡해동지,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변인선동지, 서홍찬동지, 김수길동지, 럽철성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2돐을 맞이하였다.

강철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재적인 지략과 인덕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여 백두산 총대혈통이 곳곳이 이어졌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은 총대에 의하여 줄기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최고사령관기를 진두에 날리며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최정예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역세계 자라났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의 기적을 창조해가는 영웅적군대, 영웅적인민으로 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한없는 그리움이 차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승연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양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땀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보존실, 사적렬차, 사적승용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울음홀,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따르며 신군혁명의 한길에서 최고사령관동지와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참된 혁명동지, 혁명전우로 삶을 빛내여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선군장정의 천만리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 영원히 잊지 않으리

단 벌 솜옷에 비끼 애국헌신의 세계

12월 24일, 백두산 장군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뜻깊은 날을 맞은 이 시각은 나라 천만근민의 마음과 마음은 그이께로 끌려가 달린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올수록 천만근민의 마음속에 눈물겹게 안겨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단벌솜옷을 입으시고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헤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다.

지난해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길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애국헌신으로 빛나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시며 참으로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께서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강고한 애국헌신의 길을 걸어오셨는가 하는 것은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입고계시던 단벌솜옷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단벌솜옷, 되새길수록 열렬한 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시고 선군혁명천만리 길을 쉬임없이 헤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세계가 천만의 심금을 울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잊지 못해하시며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으시던 나날을 감회깊이 더듬어보시다가 자신께서 입고계시는 솜옷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적이 있다. 그때 장군님께서 이 솜옷을 수령님을 잃고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부터 입었는데 준엄하였던 역사를 잊을 수가 없어 아직까지 벗지 않고 있다고, 이 솜옷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 단벌솜옷, 애오라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실현을 위해 끝없는 헌신의 세계를 펼치시며 선군

혁명천만리길에 이룩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영원불멸한 업적을 그이의 단벌솜옷은 얼마나 뜨겁게 전하고있는 것인가.

되새길수록 수난한 단벌의 야전솜옷을 입으시고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조국과 혁명을 수호하시고 이 땅우에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명도 업적이 어려와 격정을 금할수 없다.

절세위인의 색남은 야전솜옷을 뜨거운 가슴에 안을수록 우리 장군님께서 눈비를 다 맞으시며 넘고 헤치신 선군혁명명도의 상징 철명이며 선군의 산악 오성산의 칼벼랑길에 선명히 안겨온다. 파도가 가슴을 부리는 초도예로의 날바다길이며 원수님의 충구가 도사린 위험천만한 판문점조소길에 편만히 어려온다.

얼마나 감동깊은 사연이 우리 장군님의 야전솜옷자락에 스며있는 것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설한품물아치는 눈보라길을 헤치시느라 얼어든 몸을 녹이시던 물겨운 사연도 야전솜옷자락에 새겨져 있다.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에서 모닥불가에서 구운 감자 몇알로 끼니를 에우시며 부강변영의 전진길을 열어나가시던 눈물겨운 화폭도 그리의 야전솜옷에 력력히 어려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떤 혁명의 불꽃을 높이 추켜들고 거어어 최후승리를 펼칠 결사의 각오, 선군의 신념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야전솜옷의 설이 닳도록, 색이 바래도록 입으시고 열렬한 애국헌신의 세계를 펼치신 것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쉬임없이 인민군부대와 공장, 농촌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찾았는 명에나 평가를 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수령님의 전사로서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조국과 혁명,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할뿐이다. 나에게에는 그 어떤 명에도 필요없고 그 무슨 죄나 거러도 필요없다. 군대와 인민이 알고 동지들이 알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

수수한 야전솜옷을 입으시고 쪽잡과 꿰기함으로 날과 날을 이으시며 조국과 혁명을 수호하고 인민을 지켜 주신 우리 장군님의 로고와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 수 있겠는가.

힘찬 선군장정에 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간으로서, 혁명가로서 겪을 수 있는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시었다.

노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심야강행군, 초강도강행군 ...

하루이틀도 아닌 한해, 아니 한평생을 하루와 같이 바치시며 언제나 조국수호의 최전선에 계신 우리 장군님이다.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야전의 전사로서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사나운 눈보라를 다 막아주시며 인

민에게는 따뜻한 불날만을 안겨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한생이야말로 눈보라 한생, 후손대대가 길이 전해갈 애국, 애족, 애민의 한생이다.

선군혁명의 상징, 고난의 행군의 상징인 우리 장군님의 야전솜옷, 정녕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그것을 띠고서 여기저기 우리 장군님께서 강산도 변하는 그 세월 단벌의 솜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고결한 헌신의 세계를 펼치신 것 아니던가.

그 야전솜옷자락 날리시며 우리 장군님 병사들을 찾아 이 나라의 힘찬 고지들을 넘나드셨고 6천여 리 자강도의 강행군길과 더불어 노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을 쉬임없이 헤치시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불같은 헌신의 세계를 펼치시었다. 주체 100(2011)년 한해 동안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신데 대한 소식은 당보에 소개된것보다 무려 수십건에 달한다.

언제인가 일군들이 색남은 야전솜옷을 입고서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을 헤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 새 솜옷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다.

그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굳이 사양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사회주의 조국과 우리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시려, 이 땅이 하늘아래 부강변영하는 강성국가를 거어어 일떠세우실 의지를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야전솜옷을 소매가 닳도록, 색이 바래도록 벗지 못하신했다.

은 나라의 남나로소가 위대한 장군님의 야전솜옷은 이 땅의 천만 자식들을 한몸에 안아 온갖 눈비와 추위를 다 막아준 위대한 어버이의 옷자락이라고 터진 격정의 웨침은 참으로 당연한 것이다.

임시단결원 정치사상강국, 세계적 인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

우리 장군님 한생토록 야전솜옷을 입고서 노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을 헤치고헤치신 성스러운 애국열사들을 한몸에 안으시고 기념사건도 찍으시었다.

인공지구위성이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경이적인 현상이 펼쳐졌다.

정녕 우리 장군님의 단벌의 야전솜옷은 절세의 선군명도의 무한한 헌신의 세계와 크나큰 업적을 뜨겁게 전하는 력사의 증표로, 선군혁명의 상징이다.

우리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는 오늘 또 한몸의 걸출한 명도자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세대와 년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져 빛을 뿌리고 있다.

지난 6월초,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헤쳐오신 사회주의수호전, 불은기수호전의 력사가 력력한 선군의 산악 오성산에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오르시었다.

그리고 위험천만한 철길벼랑길, 가파로운 152급의 힘찬 길을 뚫으시어 오성산초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오성산의 군인들을 늘 가슴에 안고 사시었다고, 장군님의 그 마음을 안고 자신께서 했다고 하시며 초소의 병사들을 한몸에 안으시고 기념사건도 찍으시었다.

그날 일군들의 거두되는 간곡한 만류도 마다하지고 적정까지의 거리가 불과 몇백m밖에 안되는 위험천만한 깔벼랑초소까지 나가시어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거두어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곳 군부대 지휘부를 찾으시어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으시고 오성산칼벼랑길을 헤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안상과 업적을 높이 칭송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에도 어버이장군님의 위대성과 업적을 높이 칭송하시며 우리 장군님을 정갈심장으로 따르고 정으로 따를 위인이시라고, 자신께서 심신을 다 바쳐 웃을 소매가 닳도록, 색이 바래도록 벗지 못하신했다.

은 나라의 남나로소가 위대한 장군님의 야전솜옷은 이 땅의 천만 자식들을 한몸에 안아 온갖 눈비와 추위를 다 막아준 위대한 어버이의 옷자락이라고 터진 격정의 웨침은 참으로 당연한 것이다.

임시단결원 정치사상강국, 세계적 인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

우리 장군님 한생토록 야전솜옷을 입고서 노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을 헤치고헤치신 성스러운 애국열사들을 한몸에 안으시고 기념사건도 찍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모습으로 오늘도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헤치시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변영을 이룩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심장이 높이 모시어 우리 장군님 선군의 기치높이 한생을 다 바쳐 사랑하신 내 나라, 내 조국우에 새로운 대고조의 불화가 타나지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며

본사기자 김 인 선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발자취 력력한 선군의 산악-오성산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영원한 사랑의 메아리를 남긴 문건

인민을 위해 한평생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대하마냥 굽이치는 지금 우리 천만근민의 가슴마다에 영원히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긴 하나의 이야기가 눈물겹게 되 새겨진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꼭 짰있습니다.》

주체 100(2011)년 12월 16일,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보다 문화정신적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질 좋은 상품을 더 많이 공급해주시려고 어버이장군님께서 12월의 모진 강추위속에서 하나음악정보센터와 광복지구상업중심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으로 온 나라가 끝없는 격정의 파도속에 설레이던 그날 밤이었다.

바로 그 시각에도 우리 장군님의 집무탁우에는 그이의 손길을 기다리는 문건들이 쌓여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 인민들에게 차례질 물고기 공급과 관련한 문건을 골라주시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인민들은 명절 때는 물론 여느날에도 여러가지 물고

기들을 넉넉하게 먹을수 있었다.

그러던 우리 인민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으로 하여 물고기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실재를 두고 누구보다도 깊이 마음쓰신분은 어버이장군님 이시었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하시는 길에서 쌓으신 정신육체적 파로를 무실 사이도 없이 여러모로 물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해주시는 한편 명절때만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하도록 해주지 않았던가.

전해에 이어 이해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명태와 청어를 새해를 맞은 평양시민들에게 먹이도록 다스린 온정을 베풀어주시었다.

12월 15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 평양시안의 여러 단원들에 고구려 헌신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지남해에 물고기를 평양 시민들에게 팔아주었는데 인민들이 대단히 좋아하였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나는 인민들이 좋아할 때 제일 기쁩니다 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어버이장군님을 승엄한 경정속에 우리르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물고기를 팔러 수송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대

책적문제에 대하여 강조하시고나서 말씀을 이으시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은 다하였습니다.》

한평생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끝없는 헌신의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가슴사무치게 느끼게 하는 력사의 순간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금 보시는 문건이 바로 일군들이 양력설명절을 앞두고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물고기 생산 인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작성한 대책안이었다. 모든 세대들에 빠짐없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작성된 문건을 일일이 보아주시던 우리 장군님께서는 열차로 긴급통원하여 항에서 해당한 철도역까지 물고기를 수송하도록 친히 대책까지 취해주시고 문건을 비추시었다.

그때가 바로 밤 9시 13분이었다. 문건을 해당 부서에 내려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체없이 그 밤으로 다시 야전철차에 오르시어 초강도강행군을 이어가시었다.

인민사랑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신 그 길이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는 길인줄 누가 알았으랴.

며칠후 해당 일군들이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이 어떤 열정을 인민들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피눈물속에 작성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셨을 때였다.

누구보다도 상실의 아픔이 크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변함없이 이어가실 역사의 의지를 가다듬으시며 활달한 필체로 문건에 수표하시었다.

《의의있게 공급조직하여 장군님의 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게 할것.》

김 정 은

2011.12.22.》

크나큰 슬픔으로 하여 온 나라 인민이 비분에 몸부림치던 바로 그때였다.

한평생 인민들에게 행복과 기쁨, 사랑과 은정만을 안겨주시고도 아직 송하도록 친히 대책까지 취해주시고 문건을 비추시었다.

그후 평양시안의 상점매대들에서는 남나로소가 어버이장군님의 온정 어린 물고기를 받아오고 뚝배기 호는 가슴저미는 평양이 펼쳐졌다.

정녕 그것은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이면 하늘이 닿을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심장마다에 새겨준 눈물겨운 화폭이었다.

본사기자 리 군 분

《못 잊을 선군길추억》

한곡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어느 한 기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준엄한 고난의 행군을 의지의 힘으로 극복해오신데 대하여 감회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바로 그때 노래가 은은히 울리기 시작하였다. 엄혹한 시련이 중증철향가락마던 준엄한 그 나날에 우리 장군님께 크나큰 힘과 고무를 안겨드린 노래, 우리 인민이 결사의 의지로 웃으며 일어세게 한 노래 《하늘처럼 믿고 삼니다》였다.

이윽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을 불러보시며 자신께서는 저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었다.

계속하시어 그이께서는 인생이란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서거하시어 오도 이렇듯 인민에 대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지 못하는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

그후 평양시안의 상점매대들에서는 남나로소가 어버이장군님의 온정 어린 물고기를 받아오고 뚝배기 호는 가슴저미는 평양이 펼쳐졌다.

정녕 그것은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이면 하늘이 닿을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심장마다에 새겨준 눈물겨운 화폭이었다.

그들을 믿을어린 눈길로 바라보시

《못 잊을 선군길추억》

혁명의 근본을 잊을세라

한평생 그토록 소박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날에도 땀이 무뎠을 때조차도 잊지 않으셨다.

—아니, 땀이 무뎠을 또 드시더니? ...

언제인가도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땀이 무뎠을 케서 반찬을 만들어 먹여보았는데 맛이 없더라고 하시면서 땀이 반찬을 만드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주시던 우리 장군님 이시었다.

그날 우리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사를 되새겨보시는듯 깊은 생애에 잠겨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우리가 풀뿌리맛을 잊으면 혁명을 대못한다고, 우리는 유유맛은 몰라도 풀뿌리맛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나는 지금 노래를 들으면서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각오로 굳게 다진다. 내가 잊을 수 없이 하여 인민들을 잘살게 하겠다.

그토록 열렬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삼가 무르르른 일군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열렬한 충성과 보양의 마음이 불길로 타나지었다.

세월이 흐르며 세대가 바뀔수록 사람들은 혁명의 근본을 잊을세라 그리고 마음쓰시며 풀뿌리 하나에도 그렇듯 심오한 뜻을 담으시는 우리 장군님 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깊은 감동에 젖어있는 일군들을 불러보시며 혁명의 지휘관들이 대중과 생사운명을 같이하자면 풀뿌리맛도 알고 쓴것도 먹어보아야 한다고 다시금 깊은 뜻을 담아 말씀하시었다.

풀뿌리맛을 잊으면 혁명을 못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되새기는 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혁명의 근본을 영원히 새겨안고 백두에서 개척된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연세게 이어갈 맹세가 더욱 불타올랐다.

본사기자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 이 땅우에 혁명의 세대와 년대를 이어 힘차게 나래치고있는 것은 바로 수령철사용위정신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항일의 혁명선열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가시범본길을 헤치며 피와 땀으로 만고의 항쟁사를 창조하였으며 그들이 지녔던 수령철사용위정신,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속에 그대로 백박하고 있습니다.》

주체 50(1961)년 4월 어느날에 있는 일이다.

김일성총참모처에서 혁명활동을 벌리고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특용청취사업을 조직 하시었다.

특용청취의 내용은 장길부녀사가 항일혁명투사 마동희동지를 회상하여 한 말을 특용청취하였었다.

친히 특용기를 설치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과 같이 특용을 청취하시었다.

학생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며 진행된 특용청취는 그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심어주신 수령철사용위정신

혁명전사의 삶은 순간순간 어떻게 빛나야 하는가를 깊이 새겨주었다.

특용청취가 끝나자 학생들은 흥분된 심정을 열변으로 토하였다.

서로서로 알을 닦아두어 일어난 학생들은 마동희동지를 따라배워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자랑날 자기의 결심을 피력하였다.

그들의 열변 토론들을 주의깊게 들어주시던 장군님께서는 오늘 장길부녀사의 말을 듣고 여러 학생들이 마동희동지의 모범을 따라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여 당의 참된 전사가 되겠다는 결의를 다지었는데 아마 다른 동무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비장한 결심들이 비껴있었다.

투사의 고귀한 혁명정신세계를 그려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투쟁력사에는 혁명의 비밀을 지켜서 혁명가가 수없이 많지만 마동희동지처럼 자기의 혀를 직접 끊은 혁명가는 없었다고 말씀하시었다.

마동희동지는 혁명의 길에서 어떻

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사람이 자기의 혀를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그이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항일혁명투사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영웅적행동이라고, 마동희동지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항일혁명투사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영웅적행동이라고, 마동희동지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항일혁명투사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영웅적행동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격동으로 가슴뛰는 학생들을 일별하시면서 나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혁명의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된다는 근본문제이며 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의무로 된다. 혁명가의 참된 삶은 자기의 수령

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데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 혁명은 아직 복잡하고 험난하며 그 앞길에는 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다. 수령님께서 철천지마를 헤치시며 열어놓으신 숭고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하자면 마동희동지의 목숨을 희생할 수 밖에 없다. 마동희동지는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항일혁명투사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영웅적행동이라고, 마동희동지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항일혁명투사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영웅적행동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경건히 우리러 학생들은 심장의 맹세를 마음속으로 다지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우리도 마동희동지처럼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한생을 살아도 값있게 살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잊지 못할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겨주시는 수령철사용위정신의 고귀한 모범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존중배우며 옹호보위하는 천정만경의 영원한 생애, 방패가 될것이다.

본사기자

병사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나는 총집은 군인들을 단순히 애사가 아니라 사랑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보고 그들을 끝없이 사랑합니다.》

선군혁명명도의 상징으로 높이 솟아 빛나는 철명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걸으신 전선길의 력사적의 빛은 오늘도 천만근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들이 이 부대 사단과 협한 철명만은 너는 너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었을 때였다.

일군들을 정교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령이 사단과 협한 철명만은 너는 너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었을 때였다.

자신께서는 바람처럼 눈보라강행군을 헤치시면서도 군인들이 생활하는 병실을 찾으시어 온도부터 가늠해보시며 나의 병사들이 따뜻하게 몸을 토티오르다가 아차 실수하면 천길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진다것으로 모르는바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자주 철명을 넘나드는것은 철명너머에 사랑하는 나의 전사들이 최고사령관을 기다리며 조국의 방신을 지키고 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때가 못하든 그날 사랑하는 병사들에게로 마음달리시는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 최고사령관을 생각

하며 온몸이 얼어드는것도, 온몸이 물컹물컹해져서 체력을 무더위로 잃어내며 전연초소를 철명너머로 지키고있는 군인들을 자주 찾아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을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수 없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음성이 철명의 산발마다에 사랑의 메아리되어 오늘도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선군의 산악 오성산의 칼벼랑길과 위험천만한 판문점초소길 그리고 초도예로의 배길만이 아닌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은 위대한 선군명도의 사랑으로 이어진 력사의 길이였다.

자신께서는 바람처럼 눈보라강행군을 헤치시면서도 군인들이 생활하는 병실을 찾으시어 온도부터 가늠해보시며 나의 병사들이 따뜻하게 몸을 토티오르다가 아차 실수하면 천길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진다것으로 모르는바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자주 철명을 넘나드는것은 철명너머에 사랑하는 나의 전사들이 최고사령관을 기다리며 조국의 방신을 지키고 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때가 못하든 그날 사랑하는 병사들에게로 마음달리시는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 최고사령관을 생각

위한 일에서는 언제나 만족을 모르시었다.

지금도 조용히 귀 기울이면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준다.

수행일군들모두가 부대의 전투준비를 돌본 그분께 마다된 생활태도를 놓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정치위성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심장이 뜨거워야 하며 군인들의 생활문제를 푸는데서 만족을 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인민군대를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멋있는 불패의 강군으로 만들며 그들의 생활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하는것이 나의 리상이고 목표입니다. ...

인민군대를 불패의 강군으로, 군인들의 생활을 최상의 수준으로! 이것은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우리 군인들을 나의 아들딸들이라고 불러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세우실 수 있는 높은 리상과 목표였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의 길은 전선길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진 력사의 길이였다.

본사기자 림 정 호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생산적양양을 세차게 일으켜온 공지 드높다

이들처럼 새 기술도입속도를 높이자

최근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새 기술도입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이 주목되고있다.

공업로에서의 앞선 가열방법인 고온공기연속기술도입, 주철철생산성상화를 위한 새 기술개발, 우리의 합금수에 의거하는 중합제형생산방법확립...

철강제형생산의 주철회철에서 이득되고있는 성과의 비결은 이득 일꾼들이 지닌 혁신적인 일본체와 적지 않게 관련되어있다. 특징적인것은 새 기술도입속도를 높일 목적으로 골간기술력을 책임일꾼들이 직접 틀어쥐고 그들을 축으로 련합기업소의 모든 기술자들의 창조력을 총발동해나가는 모습이다.

이러한 련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현대과학기술과 대담면적인 재능을 소유한 인재 대우를 크게 믿고있으며 이 위대한 령령을 옮겨 동원하면 어떤 력과도 방대한 일로도 능히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장, 기업소 어느 단위에나 그 배치된 대학졸업생들과 실천적정신이 풍부한 련합기술자들이 많다. 대 단위의 책임일꾼들이 이들의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어디서나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

향해제철련합기업소 일꾼들의 사업에서

이들처럼 새 기술도입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득 일꾼들이 직접 틀어쥐고 그들을 축으로 련합기업소의 모든 기술자들의 창조력을 총발동해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온것이 련합기업소의 두뇌진출로 불리우는 혁신기술력이다. 그 사명은 어떤 기술개발이나 현대화사업들이 나서면 총체적인 연구방향을 선정하고 기술설계를 맡아하며 중요 기술과제들을 수행하는것이다. 그들과 함께 련합기업소의 다른

이 과정에서 서로 배워주고 배우며 하나가 열, 열이 백, 천을 선진과학기술로 무장시키고 다같이 힘을 합쳐 새 기술도입속도를 더욱 높여나갈수 있다.

주체철생산에서 커다란 경제적실리를 얻을수 있는 새 기술의 개발과 도입과정이 대표적인 실례로 되고있다. 당시 련합기업소에서는 혁신기술력량이 내놓은 새 기술정보에 기초하여 최전선의 기본설계와 주요기술과제 등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기술자들을 투입시켜 세부적으로 결된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두었다.

결과 빠른 기간에 주체철생산공정의 현대화공사를 다그쳐 끝낼수 있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고온공기연속기술을 도입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김충희동지의 말에 의하면 그들의 역할로 새 기술도입속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선진기술에 보다 가까워 접근한 생산정평을 꾸릴수 있었다고 한다.

혁신기술력량을 또한 과학적인 경영정책을 세우고 련합기업소의 수많은 기술자들의 창조력을 총발동하는 사업에서도 크게 은 내고있었다.

협동연구가 낳은 혁신적성공

신 의주방적기계공장에서

신 의주방적기계공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해당 부분 과학기술과 협동연구를 활발히 벌여 방적설비부속품의 질을 높을 수준으로 끌어올려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활로를 열어놓았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의 선진적인 힘을 넓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원과 기술을 생산을 높이며 나아가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합니다.”

경에하는 원수년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진적공업을 높이 받들고 공장의 일꾼들은 방적설비부속품의 질적개선을 가져오기 위하여 모를 받고 과학자들의 협동작전을 펼치었다.

공장에서 제품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설비부품인 현대화할 목표에 기술자들에게 기술과제부담을 하고 과학자들과 기술 합의를 본격적으로 벌리었다.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켜 나감에 따라 우리 당의 방침을 심장에 새기고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들이 공장에 달려와 생산자대중과 창조적역량을 합치며 방산설계를 진행하였다.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은 기계들의 특성에 맞게 조정작업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제작하기 위하여 창조적사색과 열정을 바치었다.

이들은 모사후라이스반과 좌표표반을 비롯한 8대의 설비들을 CNC화하기 위한 자동조종조종반을 만들어 드묘의 질을 한계단 끌어올릴수 있게 하였다.

열처리공정에서 최신품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김철영동지대학의 과학자들이 공장의 현대화를 함께 책임지는 련합에서 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려 더욱더 열처리자동조종반을 제작하여 방적설비부속품의 질적개선에 이바지하였다.

공장의 일꾼들은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는데 맞게 기공물을 양성하는 사업에도 빈틈없는 힘을 냈었다.

지금 있는 기계공들을 기본으로 하고 새 기계공들을 배합하여 역량을 편성하였으며 기술학습의 날을 비롯한 여러 계기를 통하여 집중적인 양성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실선속에서 풍부한 경험을 터득한 공장의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현대화된 설비들을 직접 다루면서 기계공들에게 원리를 체득시키고 프로그램 작성법도 배워주었다.

생산실현을 통하여 현대화된 설비들의 생활력을 제속한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의 창조적투쟁기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욱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에서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뜻깊은 올해에도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현대과학기술과 발전추세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새 기술, 새 제품들을 개발하여 현존생산도태를 보강하고 종전제품들을 기술적으로 갱신하여 인민경제적수요가 높은 각종 전기기구들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략적목표를 열어나가야 하겠다.”

새 제품, 새 기술개발 사업을 밀고나가는데서 이 공장일꾼들이 특별히 주목을 돌리려는것은 이 사업을 생산성상화를 위한 투쟁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전방적인 경영활동에서 실리를 확보하는데 비중을 두는것이다.

공정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 밑에 지체인, 기사장을 비롯한 이곳 일꾼들은 현존생산설비와 제품들을 기술적으로 새롭게 갱신하는 방향에서 새 기술, 새 제품개발사업을 밀고나가는데서 이 공장일꾼들이 특별히 주목을 돌리려는것은 이 사업을 생산성상화를 위한 투쟁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전방적인 경영활동에서 실리를 확보하는데 비중을 두는것이다.

본사기자 전성삼

새 기술, 새 제품들을 개발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에서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에서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합흥청년전기기구공장은 기계공업성적으로 자력개발의 기치높이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제때에 단위로 평가되고있다.

희천정밀기계공장 연료탱크분공장에서

희천정밀기계공장 연료탱크분공장에서 인민경제적수요가 높은 연료탱크용분사기와 플란자의 품질을 적극 높여 나가고있다.

지난 10월초에 조립한 후 분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4 5t, 20t 급대형자동차용 중요제품 생산에 대한 분사기, 플란자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단위에 보내주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이며 나라의 경제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장의 책임일꾼들은 기계공업성의 지도방조 밑에 어버이장군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연료탱크생산공정이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쏟고있다.

공장의 책임일꾼들은 기계공업성의 지도방조 밑에 어버이장군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연료탱크생산공정이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쏟고있다.

공장의 책임일꾼들은 기계공업성의 지도방조 밑에 어버이장군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연료탱크생산공정이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쏟고있다.

공장의 책임일꾼들은 기계공업성의 지도방조 밑에 어버이장군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연료탱크생산공정이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쏟고있다.

공장의 책임일꾼들은 기계공업성의 지도방조 밑에 어버이장군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연료탱크생산공정이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쏟고있다.

공장의 책임일꾼들은 기계공업성의 지도방조 밑에 어버이장군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연료탱크생산공정이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쏟고있다.

공장의 책임일꾼들은 기계공업성의 지도방조 밑에 어버이장군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연료탱크생산공정이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쏟고있다.

공장의 책임일꾼들은 기계공업성의 지도방조 밑에 어버이장군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연료탱크생산공정이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쏟고있다.

공장의 책임일꾼들은 기계공업성의 지도방조 밑에 어버이장군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연료탱크생산공정이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쏟고있다.

공장의 책임일꾼들은 기계공업성의 지도방조 밑에 어버이장군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연료탱크생산공정이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쏟고있다.

희천정밀기계공장 연료탱크분공장에서

희천정밀기계공장 연료탱크분공장에서 인민경제적수요가 높은 연료탱크용분사기와 플란자의 품질을 적극 높여 나가고있다.

지난 10월초에 조립한 후 분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4 5t, 20t 급대형자동차용 중요제품 생산에 대한 분사기, 플란자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단위에 보내주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이며 나라의 경제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장의 책임일꾼들은 기계공업성의 지도방조 밑에 어버이장군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연료탱크생산공정이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쏟고있다.

공장의 책임일꾼들은 기계공업성의 지도방조 밑에 어버이장군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연료탱크생산공정이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쏟고있다.

공장의 책임일꾼들은 기계공업성의 지도방조 밑에 어버이장군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연료탱크생산공정이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쏟고있다.

공장의 책임일꾼들은 기계공업성의 지도방조 밑에 어버이장군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연료탱크생산공정이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쏟고있다.

